

# 이번 주 교육·학습 브리핑: 학급 규모의 변화를 어떻게 읽을까

똑똑 · 에디터 모아 · 발행 2026.10.12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이 10월 5일 발행한 교육기본통계 해설 자료를 읽고, 전국 평균과 내 학교의 현실을 구분합니다.

확인 기준 2026년 10월 12일. 교육부의 10월 5일 자료와 기존 교육과정 고시를 해설합니다. 10월 12일 새 교육정책 발표를 뜻하지 않습니다.

## 쉬운 설명

이번 주 확인할 자료는 새로운 수업 규칙이 아니라 오래된 통계 두 시점을 비교한 해설입니다. 초등학교의 전국 평균 학급당 학생 수는 2000년 35.8명에서 2026년 18.6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나 이 숫자는 개별 학교의 학급 크기나 수업 경험을 말해 주지 않습니다. 자료가 언제 조사됐고 무엇을 평균냈는지부터 읽어야 합니다.

## 핵심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자료는 2000년과 2026년의 교육기관 규모를 비교합니다. 10월 5일은 자료 발행일이며 학생 현황은 원칙적으로 4월 1일 기준입니다.
- 평균 초등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는 35.8명에서 18.6명으로 감소했지만 지역·학교별 차이를 이 평균 하나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 2022 개정 교육과정은 2026년 초5·6, 중2, 고2까지 적용됩니다. 통계 변화와 교육과정 적용을 인과관계로 묶지 않습니다.

## 자료의 시계 · 발행일과 조사 기준일을 먼저 나누기

교육부는 2026년 10월 5일 《데이터로 읽는 우리 교육》 제15호를 게시했습니다. 첨부 원문은 2000년과 2026년의 교육기관 모습을 비교합니다. 이 자료가 다루는 교육기본통계는 유·초·중등과 고등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일반적인 조사 기준일은 매년 4월 1일입니다. 일부 항목의 기준일은 다를 수 있으므로 특정 수치를 인용할 때 해당 표와 주석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 주 학교의 학급 수가 갑자기 줄었다’는 소식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10월은 해설 자료가 발행된 시점, 2000년과 2026년은 비교 대상의 연도입니다. 이 브리핑의 확인 기준일은 2026년 10월 12일입니다.

## 숫자의 뜻 · 평균 학급이 작아졌다는 수치

원문 3쪽의 ‘2000년 대비 2026년 평균 초등학교 변화’ 표에서 학교당 학생 수는 763.2명에서 358.5명으로, 학급당 학생 수는 35.8명에서 18.6명으로 바뀌었습니다. 학교당 학생 수의 차이는 404.7명, 학급당 학생 수의 차이는 17.2명입니다. 여기서 소수점은 실제 한 학교에 학생이 0.5명 있다는 뜻이 아니라 여러 학교의 평균을 계산한 결과입니다.

같은 쪽에서 학생 수 20명 이하인 초등학교 학급 비율은 11.9%에서 48.8%로 늘었습니다. 두 비율의 차이는 36.9%포인트입니다. ‘36.9% 증가’와는 다른 표현입니다.

| 지표                | 2000년  | 2026년  | 읽을 때 주의        |
|-------------------|--------|--------|----------------|
| 평균 초등학교의 학교당 학생 수 | 763.2명 | 358.5명 | 한 학교의 실제 인원 아님 |
|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     | 35.8명  | 18.6명  | 전국 평균          |
| 초등학교 20명 이하 학급 비율 | 11.9%  | 48.8%  | 차이는 36.9%포인트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데이터로 읽는 우리 교육》 2026 제15호, 3쪽. 표의 범위는 초등학교이며 중·고등학교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 해석의 경계 · 평균만으로 내 학교의 수업을 설명할 수는 없다

전국 평균 학급당 학생 수가 줄어도 모든 학교의 학급이 똑같이 작아진 것은 아닙니다. 학교가 있는 지역, 학년, 학교 규모에 따라 분포가 다를 수 있습니다. 원문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학교 수·학생 수 변화를 따로 제시합니다. 내 학교의 상태를 말하려면 해당 학교와 지역의 최신 자료가 더 필요합니다.

학급 규모의 변화만으로 수업의 질이나 학생의 성취가 좋아졌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교사 배치, 공간, 지원 인력, 교육 활동처럼 다른 조건이 함께 작용합니다. 이번 자료는 교육기관 규모의 기술적 변화를 보여 주며, 특정 정책의 효과를 검증한 연구는 아닙니다.

## 이번 주 확인 · 교육과정은 학년별 적용 일정을 확인하기

교육부 고시 제2022-33호의 부칙에 따르면 2022 개정 교육과정은 2024년 초1·2, 2025년 초3·4와 중1·고1, 2026년 초5·6과 중2·고2, 2027년 중3·고3에 차례로 적용됩니다. 2026년 10월 현재 ‘모든 학년이 새 교육과정으로 바뀌었다’고 설명하면 틀립니다.

교육기본통계의 학급 규모 변화와 이 적용 일정은 서로 다른 자료입니다. 두 정보를 함께 읽을 때도 ‘학급 수가 줄어서 새 교육과정이 시행됐다’처럼 원문이 제시하지 않은 인과관계를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 학년에 무엇이 적용되는지는 고시와 학교의 교육과정 안내를 차례로 확인하면 됩니다.

## 활용 · 교육 기사 한 편을 읽는 네 칸 점검표

예를 들어 ‘학급당 학생 수 18.6명’만 적은 카드에는 ‘2026년 초등학교 전국 평균’이라는 범위를 붙여 봅니다. 반대로 자기 학교의 한 반에 30명이 있다고 해서 전국 통계가 곧바로 틀렸다고 결론 내리지 않습니다. 평균과 개별 사례는 동시에 참일 수 있습니다.

- 발표일: 문서가 공개된 날짜는 언제인가?
- 조사일: 통계의 기준 시점은 언제이며 항목마다 다른가?
- 분모와 범위: 전국 평균인가, 특정 지역·학교급·학년의 값인가?

- 해석: 원문이 보여 준 변화와 내가 추론한 원인을 구분했는가?

## 직접 생각해 보기

원문의 초등학교 표에서 한 수치를 골라 ‘발행일·조사 기준·학교급·평균인지 비율인지·이 수치만으로 말할 수 없는 것’을 한 문장씩 기록하세요.

---

---

---

---

---

## 확인 설명

예: '2026년 10월 5일 발행된 자료의 초등학교 표에서 2026년 학급당 학생 수는 전국 평균 18.6명이다. 일반적인 교육기본통계 조사 기준일은 4월 1일이지만 이 항목의 주석을 다시 확인한다. 이 평균만으로 내 학교의 학급 규모나 수업의 질은 판단할 수 없다.'

10월 5일에 조사한 수치인가요?

아닙니다. 10월 5일은 제15호 자료의 발행일입니다. 교육기본통계의 일반적인 조사 기준일은 4월 1일이며 일부 항목은 다를 수 있습니다.

2026년 고등학교 3학년도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배우나요?

교육부 고시 제2022-33호 부칙의 학년별 일정상 고3 적용일은 2027년 3월 1일입니다.

학급당 학생 수가 줄면 수업의 질이 높아졌다는 뜻인가요?

이 통계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학급 규모 이외의 수업 조건과 성취를 별도 자료로 살펴봐야 합니다.

## 원문과 출처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 데이터로 읽는 우리 교육 2026 제15호 — <https://www.moe.go.kr/boardCnts/fileDown.do?fileSeq=1708176937177520581f58d412d99e17&m=020402&s=moe: 2026-10-05> 발행. 2쪽 조사 설명, 3쪽 초등학교 비교 표·학급 규모 비율, 4쪽 지역별 변화. 수치는 자료의 표기대로 옮겼습니다.
- 교육부 · 데이터로 읽는 우리 교육 제15호 발간 안내 —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boardSeq=107376&lev=0&m=020402>: 2026-10-05 게시. 첨부 원문과 발행일을 확인했습니다.
- 교육부 고시 제2022-33호 ·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141&boardSeq=93458&lev=0&m=040401>: 2022-12-22 고시. 부칙 1항의 2024~2027년 학교급·학년별 시행일을 확인했습니다.

제작 방식과 정정 안내: <https://www.dokdok.co/about#editorial>

온라인 원문 · 수정된 내용은 아래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https://www.dokdok.co/reading/education-week-2026-10-12>